

## “새로운 도전 앞에 정해진 길은 없다”

- 성명 : 조수미
- 근무기구 및 부서 : UNESCAP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UNIDO 비엔나본부
- 직위 : 인턴
- 지원 경로 : 공석 공고를 통한 개인 지원
- 근무 기간 : 2014. 1. 6. ~ 2014. 6. 27.

### 새로운 길 앞에 서다

대학생 시절, 캄보디아와 터키에서의 해외 봉사 경험은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발단이 되었다. 특히 과거 독재 정권으로 인한 참상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생생한 민족 갈등의 모습은 국제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씨앗이 되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나는 졸업 후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였고, 첫 직장인 삼성SDS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신 인프라 관련 해외 프로젝트 수행 등 엔지니어로서의 역량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오랜 고민의 씨앗은 5년 동안의 업무경험을 발판으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는 포부로 자라났고, 국제 사회에서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국제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국제 사회의 정치 경제적 질서와 근원적인 불평등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배우며,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국제 기구가 하고 있는 실무적 노력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 유엔 기구에서의 인턴십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조수미 대리가 아닌 인턴 조수미라는 사회 초년생으로 바뀌었지만, 나의 새로운 도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었다.

### 유엔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유엔 인턴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지원군은 환경부의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이었다. 환경부에서는 국제환경분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내전문 교육 후 일부 인원에게 환경 관련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국제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술협력 분야에 대해 세분화된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의 세부 관심분야와 맞는 유엔 기구를 조사하였고, 총 4개 공석에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은 UN Career 웹사이트에서 공석을 공지하는 사무국 산하의 조직도 있지만 개별 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공지하는 Special Agency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공석을 확인하고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로 인터뷰 연락을 받은 곳은 UN ESCAP산하의 APCTT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였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APCTT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환경과 기술이라는 나의 관심사에 딱

맞는 곳이었다. 인터뷰는 센터장 및 향후 나의 상사가 되었던 부서장과 전화로 진행되었고 나의 지원 동기와 경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주일 후, 반가운 합격 소식을 듣고 인도행을 위한 설레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UNIDO의 비엔나본부에서 두 번째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이미 APCTT에서의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였다. 다행히도 전화인터뷰를 통해 첫 번째 인턴십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근무를 시작하기로 조율을 하였고, 이렇게 나의 두 번째 유엔 인턴십을 계획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그리고 환경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나 같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멀게만 보였던 유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의 수많은 학생들이 유엔 기구에서의 인턴십에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관의 공식 수요가 나의 조건과 잘 맞아야 하는 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관심 기구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면 그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었다.

## 두 개의 다른 도시에 스며들다

유엔 인턴십의 목적은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델리의 APCTT와 비엔나의 UNIDO는 소재지 국가의 문화적 특성부터 기관의 성격까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험이었다. 파견 전에 뉴델리에서 치안 관련 사건이 다수 보도되어 우려가 되었지만 여행자가 밀집한 Old Delhi 지역에 비해 기관이 위치한 South Delhi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 및 비즈니스 지역이었다. 하지만 가로등이 많지 않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저녁 이후에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였고, 기관에서도 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주고 지원해주었다. 기관이 지하철 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인턴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인력거였는데, 심각한 매연과 경적 소리에 대한 적응과 능숙하게 요금 흥정을 하는 정도는 인턴의 경륜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반면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힐 정도로 편리한 인프라와 이상적인 인구밀도 및 사회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 학생 신분으로서 저렴한 숙소 및 교통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특히 비엔나는 유엔본부 중 하나로서 UNIDO 외에도 다수의 유엔 기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유엔본부 내에서도 각종 편의시설과 어학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6개월 동안 두 개의 다른 도시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은 나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주었다.

## 인턴의 일은 작지만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뉴델리 APCTT에서의 나의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사무 보조와 연구 수행이었다. 특히 APCTT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기술이전 관련 워크숍을 다수 개최하고 있는데 워크숍을 위한 프로그램 안건 작성 및 결과 보고서 정리 등의 과제를 통해 센터의 업무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실무적인 기여로서는 센터의 지식공유 활동을 위해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였고,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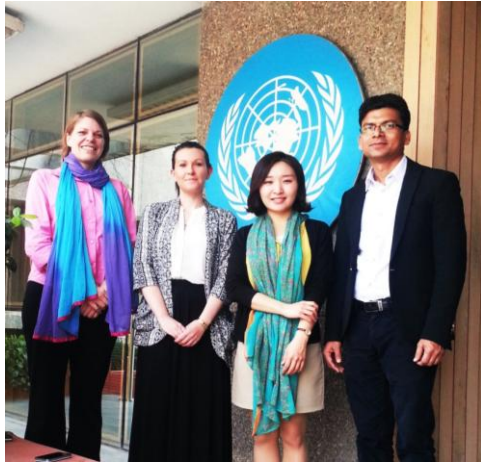
개선하였다. APCTT의 업무 분야와 본인의 관심사가 일치하여 업무가 즐거웠고, 가족 같은 근무 분위기로 항상 인턴을 존중해 주어서 감사했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인턴들과 기관과의 상호 배움의 기회로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고, 가능한 한 다양한 업무와 외부 세미나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어 유익하였다. 실무적인 프로젝트 보조 업무와 학술적인 연구 업무를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었고, 본인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UNIDO 비엔나본부에서의 인턴십 업무는 크게 프로젝트 실무 지원과 선택 주제에 대한 연구과제, 두 가지로 나뉘었다. 내가 근무한 부서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우간다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조사 수행과 제안서 초안 작성업무를 맡았다. 또한 나의 상사는 엔지니어로서의 나의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기술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었는데, 인턴십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만큼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준 업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연구과제로서 3자간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돌아와서 쓰게 될 석사 논문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UNIDO에서는 다양한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인턴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인턴의 업무는 상사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상사는 나에게 인턴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었고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및 개인의 역량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해주었다.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이 유엔에서의 인턴의 업무는 대부분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미션과 프로젝트의 큰 그림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지만 중요한 퍼즐 조각과도 같다. 내가 하는 일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이루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작동 방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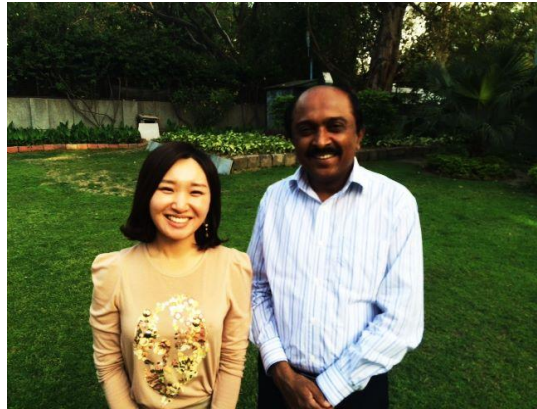
## 유엔 인턴십과 나의 성장

UNESCAP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 및 UNIDO 비엔나본부의 인턴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 중 가장 값진 것은 나에게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턴십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본부에서의 업무와 지역 사무소의 보다 세분화된 업무 중에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프로젝트의 실무적인 업무와 연구 수행 등의 학술적인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나를 더욱 열정적으로 자극시켜주는지, 그리고 다국적 업무 환경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 나의 업무 및 문화적 성향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동료들과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항상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도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졸업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유엔에서 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한다. /끝/

UNESCAP 인턴들과 센터 건물 앞에서



인턴십 최종 발표 후 APCTT 상사와 함께



UNIDO 비엔나본부 앞



UNIDO 부서 워크숍 후 단체사진



UNIDO 인턴들과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비엔나 국제센터 대회의장

